추모 발원문

종교지도자로 일생을 헌신하시고 세연을 다하신 한양원 회장님의 덕화를 깊게 추모하니, 시대마다의 삶이 지혜로운 순간으로 빛나고, 한걸음 한걸음의 자취가 후대의 등불로 밝혀 지이다.

인성을 중시하여 광명으로 이르게 하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평소의 일념은 화합의 지혜요, 사회의 나아갈 지침이었으니, 후대는 큰 복덕을 얻어 넓은 그 길 따라 화평하고 순창하게 나아갈 지이다.

민족의 얼과 정기로써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와 삶의 목표를 찾게 해준 소중한 공덕 또한, 종교인의 나아갈 실천으로 선명하게 남겨지고, 이로써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자리할 지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겨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오랜 수고로움이 이제 상서로운 광명으로 항상 함께하여 지이다.

일평생 염원하셨던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다 보시고 가시는지 추모의 인사드리며, 덕을 입은 사람들이 고마운 인연으로 마음 깊이 새기었으니, 이곳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원하는 곳에서 편안케 누리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